

# 당나귀 문장의 대명사 의미해석\*

최 중 열

(전주대학교)

Choi, Choong-Lyeol. 2000. **Meaning Interpretation of Pronouns in Donkey Sentences.**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259-279.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explain the intricate problems of the pronouns in donkey sentences. After Evans(1980) proposed that we should acknowledge a fourth pronoun, the so-called E-type pronoun, many approaches, such as, E-type analysis,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Dynamic Binding Theory, tried to explain the intricat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centering on the pronouns in donkey sentences. But their explanations have not a few deficiencies in many respects. I want to propose that the meanings of the pronouns in donkey sentences should be explained through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which are based on the concepts like the world which can reflect our mental spaces, the interpretation rules, and so forth. The interpretation rules I want to propose are as follows: 1) meaning interpretations are to be done in  $W_0$  in most cases, 2) contradictions are to be avoided within a world, and 3) background assumptions in  $M$  are to be similar to those in  $R$ . (Jeonju University)

## 1. 서론

대명사 연구에 있어서 당나귀 문장(donkey sentences)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기존의 동일지시론자들(Langacker,1966; Ross,1967; Chomsky,1980, 1981; Levinson,1991)이나 변항주의자들(Higginbotham,1980; Aoun,1986; Sells,1986)의 이론이 더 이상 대명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적절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본고에서 필자는 두 가지 형태의 당나귀 문장 중<sup>1)</sup> 다음 (1)에서처럼 양화사

---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다른 형태의 당나귀 문장은 다음 i)과 같이 조건절 형태의 당나귀 문장을 일

와 관계대명사절을 지닌 당나귀 문장형태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니는 의미의 특성을 살펴본 뒤 이를 우리의 언어직관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할 때 Fauconnier(1985, 1994, 1997)의 두뇌 공간을 이용한 인지론적 접근방법이 매우 적절한 이론적인 틀임을 밝히고자 한다.

(1) Q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문장요소이다.<sup>2)</sup> 따라서 명사가 본래 사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명사 역시 사물을 지칭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특히 담화 중 앞서 나온 명사가 지칭한 것을 다시 지칭하고자할 때 사용된다. 동일한 표현을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잉여성을 피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명사는 앞에서 명사가 지칭한 사물을 그저 기계적으로 되풀이하여 지칭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자하는 위 (1) 문장 형태의 당나귀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명사는 다음 (2)에서 제시한 의미를 지닌다. 즉 문장 (1)은 상황에 따라 다음 (2)에서 예시한 네 가지의 의미 유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 (2) a. Q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the donkey he owns  
 b.  $Q \{ \langle x, y \rangle \mid \text{farmer}(x) \wedge \text{donkey}(y) \approx \text{own}(x, y) \} \{ \langle x, y \rangle \mid \text{beat}(x, y) \}$   
 c. Q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a donkey he owns  
 d. Q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every donkey he owns

낀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 형태의 당나귀 문장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당나귀 문장과 그 의미가 대동소이하다.

i) If a farmer owns a donkey, he beats it.

2. 대명사는 다음 i)의 예문들과 ii)의 예문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명사를 선행사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명사구를 선행사로 취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절을 선행사로 취하기도 한다.

i) I like the woman in the blue hat.

I like her.

\* I like the her in the blue hat.

ii) Mr. Kim thinks that he is smart, but I don't believe it.

(2a)의 유형은 Kadmon(1990)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일 조건(uniqueness condition)이 충족될 때의 의미이고 (2b)는 Kamp(1981)나 Heim(1990)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농부와 당나귀의 쌍을 고려하는 의미이다. 한편 (2c)는 약한 의미해석(weak reading)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2d)는 강한 의미해석(strong reading)을 담고 있는 의미이다.

## 2. 본론

### 2.1 예전의 연구들

Geach(1962)가 당나귀 문장을 언급하고 난 뒤 그 통사적 특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 Evans(1980)가 선행사에 양화사가 포함되어 있는 E-type 대명사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대명사가 지닌 의미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하여 언급하자 (1)의 문장형태가 지닌 의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학자들의 연구를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Evans(1980)나 Cooper(1979)등으로 대표되는 E-type의 분석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Kamp(1981), Rooth(1987), Heim(1990)등이 중심을 이루는 담화표지 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sup>3)</sup>이다. 마지막으로 Groenendijk and Stokhof(1990, 1991)의 역동적 결속이론(Dynamic Binding Theory)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Lappin(1989), Lappin and Frencez(1994), Chierchia(1990, 1992, 1995)등이 있는데 이들도 세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아니면 세 이론을 혼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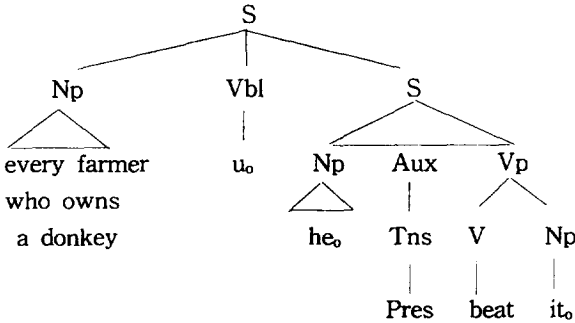
#### 2.1.1 E-type의 분석

이들에 의하면 당나귀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명사는 결코 결속변항(bound variable)이 될 수 없다. 담화조용(discourse anaphora)의 개념에 근거하여 설명하는데 대명사의 선행사가 나타나고 있는 절(clause)로부터 형성된 열린 문장(open sentence)을 만족시키는 대상(object)을 선택하는 한정적 기술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음 (3)과 같은 문장의 통사구조를 (4)처럼 제시한다.

3. 여기에 Heim(1983)으로 시작되는 서류철 변화(File Card Change) 이론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4)



위 수형도 (4)에서  $it_0$ 는 두 개의 변항을 지닌 의미해석을 갖게 된다. 그 하나는  $u_0$ 로 이는 명사구,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에 의하여 결속되고 다른 하나의 변항은 사용맥락에 의하여 그 값이 결정되는 관계함수에 대한 변항이다. 따라서  $it_0$ 는 다음 (5)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5) \lambda K \exists x [\forall y [{}^v S(u_0)](y) \equiv y=x] \wedge K(x)]$$

이러한 해석은  $it$ 가  $u$ 에 대하여 S 관계를 지닌 유일한 개체에 대한 속성의 집합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문장 (3)을 해석할 경우에  $it$ 는 다음 (6)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6) \exists x [\forall y [{}^v S(u_0)](y) \equiv y=x] \text{ beat}'_*(u_0, x)]$$

이를 이용하여 문장 (3)을 해석하면 문장 (3)은 다음 (7)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부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당나귀를 때린다는 의미 즉 (8)의 의미이다.

$$(7) \forall u [\text{famer}'(u) \wedge \exists v [\text{donkey}'(v) \wedge \text{own}'_*(u, v)] \supset \exists x [\forall y [{}^v S(u)](y) \equiv y=x] \wedge \text{beat}'_*(u, x)]$$

(8)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the donkey he owns.

이러한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의 의미에 대한 의미해석은 동일지시론자들이나 변항주의자들의 의미해석보다는 진일보한 점이 있다. 대명사의 의미해석을 상황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함으로써 paycheck의 문장과 같이 동일지시론자들이나 변항주의자들은 설명할 수 없었던 대명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 중 유일한 당나귀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sup>4)</sup> 다시 말하여 유일 조건이 성립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문장 (3)은 다른 의미도 지닐 수 있다. (7)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음의 (9) 또는 (10)의 의미도 지닐 수 있다.

- (9)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a donkey he owns.
- (10)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every donkey he owns.

더욱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토박이들<sup>5)</sup>은 문장 (3)의 의미로 (7)보다는 (10)의 의미가 훨씬 자연스럽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문장 (3)은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유형 중 (2a), (2c) 그리고 (2d)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2d)의 의미가 제일 적절한 의미인 것이다. E-type의 분석은 유일 조건에 근거하여 (2a)의 의미를 문장 (3)의 의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로 양화사가 every가 아닌 no나 most 또는 at least two등일 때 나타나는 다양하고 독특한 의미현상도 설명할 수 없다. 다음 (11)의 예문들을 보자.

- (11) a. No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 b. Most farmers who own a donkey beat it.
- c. At least two farmers who own a donkey beat it.

윗 예문에서 (11a), (11b), (11c) 모두 (2a)의 의미유형이 밝히고 있는 유

4. 유일 조건(unicqueness condition)이란 Kadmon(1990)이 주장한 조건인데 그녀도 언급했듯이 다음 i)과 같은 문장에서는 유일 조건이 정지된다. 참조 Lappin(1989) Heim(1990)

i) Every one who bought a sage plant here bought five others along with it.

5. 본 논문에서 지칭되고 있는 토박이들은 필자가 만났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토박이들을 일컫는다.

일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는 아니다. (11a)의 경우에는 (2c)의 약한 의미해석을 지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토박이의 언어직관에 가깝고, (11b)의 경우에는 (2b)나 (2c) 또는 (2d) 의미 중 하나일텐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sup>6)</sup> 한편 (2c)의 경우에는 (2d)의 강한 의미해석을 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토박이의 언어직관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도 역시 유일 조건의 성립에 토대를 두고 있는 E-type의 분석은 설명할 수 없다. 결국 E-type의 분석은 결점을 지닌 이론임이 분명하다.

### 2.1.2 담화표지 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이들은 E-type 대명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명사는 변항주의자들처럼 결속변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고 해석해내려고 하는 당나귀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명사는 결속변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것으로 맥락에 의하여 그 내용이 재구성되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E-type의 분석과 같은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도 양화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다음 (12)처럼 세 부분의 구조로 나누어 분석한다.

(12) Q [A] [B]

윗 (12)의 구조에서 Q는 양화사이고 A는 제한부이며 B는 핵심부이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장 (3)은 다음 (13)처럼 세 부분으로 분석된다.

(13)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양화사                      제한부                      핵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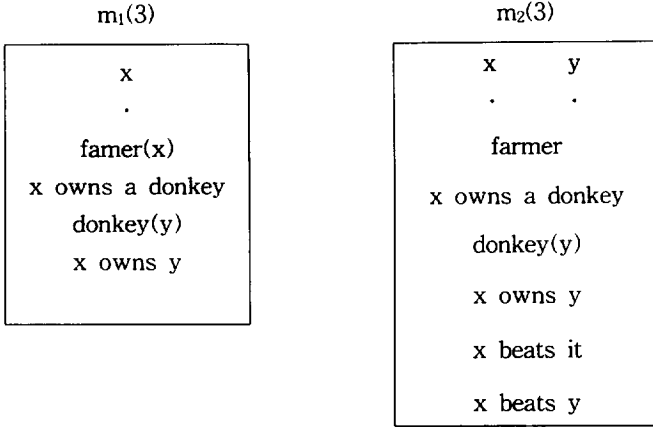
그리고 그 의미는 다음 (14)처럼 표시된다.

---

6. 하지만 (11b)와 똑같은 문장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다음 i)과 같은 경우에는 토박이들의 의미해석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참조 Heim(1982) Rooth(1987)

i) Most people who owned a slave also owned his offspring.

(14)



윗 (14)의 모델에 의하면 문장 (3)의 의미는 x가 농부이고 y가 당나귀이며  $\langle x, y \rangle$ 의 관계가 소유관계이고 동시에 때리는 관계이면 참인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즉 다음 (15)의 논리구조로 표시되는 의미이다.

$$(15) \forall x,y[\text{farmer}(x) \wedge \text{donkey}(y) \wedge \text{own}(x,y)][\text{beat}(x,y)]^7$$

문장 (3)에 대한 이러한 의미해석은 E-type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토박이들은 문장 (3)의 의미로 (10)의 의미 즉 (15)에서 밝힌 의미를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의미를 해석해냄으로써 E-type의 분석보다는 조금 더 사실에 접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E-type의 분석보다는 담화표지 이론의 분석이 좀 발전된 이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담화표지 이론 역시 E-type의 분석이 안고 있는 거의 모든 약점들을 대부

---

7. (15)에서 y에 대하여 전치양화사의 결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담화표지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 때문이다.

- i) 비한정사(indefinites)는 자기 스스로 변항을 결속할 수 있는 양화력(quantification force)이 없는 대신 자유 변항(free variable)으로 기능 한다.
- ii) 비한정사는 자신을 결속하는 가장 가까운 다른 양화사에 의하여 양화력을 가질 수 있다.

분 그대로 안고 있다. 우선 문장 (3)이 (7)이나 (9)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다음 (16)과 같은 예문의 경우에는 it가 의미하는 quarter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quarter 모두가 아니다. 그 중 하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quarter로 문장 (16)이 사용될 상황에서 예상되는 quarter의 일부분이지 결코 전부가 아닌데도 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16) Every man who had a quarter put it in the parking meter.

둘째로 (11)의 예문에서처럼 양화사가 no, most, at least two동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no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2c)의 약한 의미해석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at least two를 지니면 (2d)의 강한 의미해석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를 해석할 수 없다. 또 most를 지닐 경우에도 (2b)나 (2c) 그리고 (2d) 즉 농부와 당나귀의 쌍을 고려한 의미와 약한 의미해석 그리고 강한 의미해석의 의미 모두를 지니게 되는데 역시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담화표지 이론도 E-type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결점을 지닌 부적절한 이론임이 분명하다.

### 2.1.3 역동적 결속이론(Dynamic Binding Theory)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지나는 진리조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발화될 때 그 문장을 발화하거나 듣게된 사람이 지닌 정보로부터 변화시키는 양식 속에 있다. 결국 문장은 우리를 어떤 하나의 정보 상태에서부터 변화된 다른 어떤 정보의 상태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란 바로 이런 변화를 초래한 바로 그 양식(way)내에 존재하게 된다.<sup>8)</sup> 구체적으로 역동적 결속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의미론 학자들이 거의 모두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모형의미론의 합성성의 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원리 없이 자연언어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명제변항(propositional variable)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다음 (17)과 같은 생소성/친숙성의 조건

8.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역동적 결속이론이 서류철 변화 이론과 기본적인 가설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velty/familiarity condition)도 이용한다.

- (17) 생소성/친숙성의 조건 : 문장 S가 f라는 맥락에서 발화되면, S내에 있는 모든  $Np_i$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
- a.  $Np_i$ 가 비한정적이면  $i \notin D(f)$ 이고
  - b.  $Np_i$ 가 한정적이면  $i \in D(f)$ 이다

따라서 문장 (3)은 다음 (18)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 (18) a.  $\forall x[[\text{farmer}(x) \wedge \exists y[\text{donkey}(y) \wedge \text{own}(x,y)]] \rightarrow \text{beat}(x,f(x))]$   
 b. f: a function from farmers into the donkey(or donkeys) they own

이러한 분석은 상황에 따라 문장 (3)의 it가 유일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당나귀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진술한 E-type의 분석이나 담화표지 이론보다 훨씬 발전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담화표지 이론에서는 (16)의 문장이 지니는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없었는데 역동적 결속이론은 이를 다음 (19)처럼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19) a.  $\forall x[[\text{man}'(x) \wedge \exists y[\text{quarter}(y) \wedge \text{have}(x,y)]] \rightarrow \text{put}(x,f(x))]$   
 b. a function from men into one of their quarters they had

그러나 역동적 결속이론도 근본적으로는 담화표지 이론과 동일한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담화표지 이론 그리고 나아가서는 E-type의 분석과 대동소이한 결점을 지닌다. 우선 문장 (3)은 (2)에서 제시한 네 유형 중 (2a) 뿐만 아니라 (2c)와 (2d) 즉 (8)과 (9) 그리고 (10)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데 그 중 (10)의 의미가 토박이의 언어직관에 가장

9.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역동적 결속이론은 담화표지 이론을 토대로 좀 더 발전시킨 서류철 변화 이론과 이론적 가설들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철 변화 이론도 담화 표지 이론과 그 이론적인 가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 결속이론 역시 담화표지 이론과 이론적 가설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주 7.

근접한 의미이다. 그런데 역동적 결속이론은 문장 (3)이나 (8) 또는 (10)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10)의 의미가 토박이들의 언어직관에 가장 일치하고 있는 의미라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역동적 결속이론이 E-type의 분석이나 담화표지 이론보다 좀 발전된 이론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결점을 지닌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화사가 no, most, 또는 at least two등일 때 나타나는 의미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방법을 역시 제공할 수 없다. 양화사가 달라짐에 따라서 내포되어 있는 문장 속의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를 해석해낼 길이 없는 것이다.

결국 E-type의 분석, 담화표지 이론, 그리고 역동적 결속이론 모두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결점들을 지닌 이론들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 2.2.1 인지론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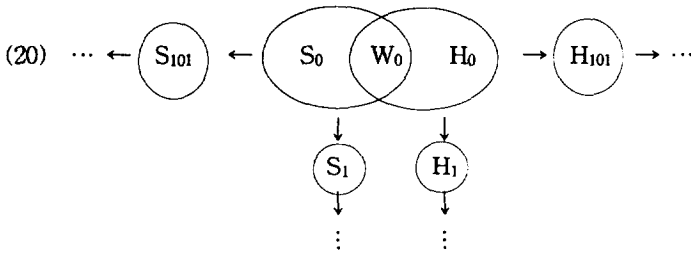
자연언어를 이용한 언어활동은 결국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진술이든 의문이든 아니면 명령이든 모든 형태의 언어활동이 궁극적으로 언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지세계를 넓히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를 밝혀야 하는 작업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는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와 청자 두 사람 모두 아니면 적어도 언어활동을 시작한 화자 한 사람에게 만이라도 이미 알려진 사실 곧 옛 정보(old information)를 담고 있는 부분과 청자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사실 다시 말하여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를 싣고 있는 부분이다. 대명사가 쓰여진 문장에 적용하면 대명사 자신은 옛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 분류되고 대명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대명사의 정보 즉 옛 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반박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싣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대명사가 이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은 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아쇠 역할을 하는 선행사가 먼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존재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대명사가 옛 정보를 싣고 있는 부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명사는 동일지시 개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고 변항 개념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당나귀 문장에 나타나는 대명사는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결코 이 두 개념에 근거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인 E-type의 분석이나 담화표지 이론 또는 역동적 결속이론도 설명해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인지론적 해석방법에 근거하여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닌 의미의 다양함과 그 특성을 밝히고 이를 해석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대명사와 대명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선행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행사는 대부분 명사구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데 대명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방아쇠 역할을 하는 정도로 보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해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언어활동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세계(world of shared knowledges)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많은 결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언어활동을 통하여 화자와 청자 모두 새로운 사실을 접하거나 확인함으로써 인지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외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고에서 그 의미의 특질을 밝히고 해석해내고자 하는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닌 의미현상을 토박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화자와 청자가 참이라고 믿고 공유하고 있는 세계로 한정할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언어활동을 통하여 인지하는 세계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참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세계(actual world)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하지만 그대로 정지하여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더욱 더 많은 정보가 덧붙여져서 확장되는가 하면 옛 정보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올바른 정보에 의하여 그 정보가 교체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실세계는 때로는 상상의 세계로 확장되는가 하면 실세계와는 반대의 사실들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정의 세계로 확장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의 세계로도 확장될 수조차 있다. 따라서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다음 (20)처럼 가정해야 한다.



- $S_0$  : 화자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화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 $H_0$  : 청자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청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 $W_0$  : 화자와 청자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화자와 청자 모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위 상황에 대한 모형 (20)에서  $S_0, H_0, W_0$ 가 나타내고 있는 세계는 화자, 청자 그리고 화자와 청자 두 사람 모두에게 관련된 각각의 실세계로 보면 충분하다. 한편 형편에 따라 다른 세계로의 확장이 무한하게 가능하다. 세계확장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세계확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세계사이의 관계가 이행적(transitive)이라는 사실이다.  $S_0$ 의 세계에서  $S_1$ 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W_0$ 의 세계로부터  $S_0$ 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W_0$ 의 세계로부터  $S_1$ 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관계를 일컫는다. 물론 전체 상황을 형성하는 각각의 세계가 재귀적(reflexive)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계관계가 대칭적(symmetric)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W_0$ 는 투명한 세계이기 때문에 대칭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음 (21)과 같은 인식의 원칙들이 필요하다.

(21) 인식의 원칙

- a. 우리의 인식활동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 b. 우리의 인식활동은 실세계의 사실들을 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 c. 대화 중 상대방에 의하여 주장되는 명제는 실세계 또는 접근 가능한 보조세계에서 참일 때 비로소 참인 명제로 받아들인다.

- d. 일단 어떤 명제가 상황에 덧붙여지게 되면 그 이후 그 명제로부터 추론 가능한 모든 명제는 명시적 전제로서 인정한다.

한편 (21d)에 의하여 명제가 상황에 첨가될 때 어느 명제가 우선적으로 첨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 (22)와 같다.

- (22) a. 발화된 문장의 함의  
 b. 발화된 문장의 절 회화함축  
 c. 발화된 문장의 척도 회화함축  
 d. 발화된 문장의 전제

그리고 (20)에서 제시한 상황과 (21)의 인식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때 지켜야 할 다음 (23)의 해석의 원칙이 또한 필요하다.

(23) 해석의 원칙

- a. 의미해석은  $W_0$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b. 한 세계 안에서의 모순은 피한다.  
 c. 인지활동의 근간이 되는 실세계와 이에 연결된 보조세계 사이에 있어서 배경지식은 할 수 있는 한 비슷해야 한다.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사실들을 기술하고 또 이와 관련 있는 논의를 한다 할지라도 실세계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니게된 지식을 토대로 이러한 기술이나 논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지닌 의미가 결국은 실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지니게된 믿음(beliefs) 또는 가설(assumptions) 등에 비추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의미해석이  $W_0$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한 명제이다.

그리고 한 세계 안에서의 모순도 피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 세계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10)</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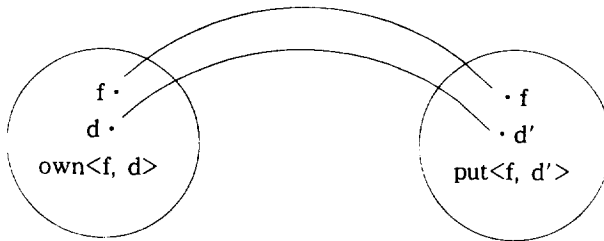
10. 실은 이러한 경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란 동일한 하나의 세계 안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르게 내린 판단을 하나의 세계-일반적으로 실세계-에서 바라

한편 (23c)와 (21d)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인지활동이 용이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실세계를 형성하는 명제들과 보조세계를 이루는 명제들 사이에는 할 수 있는 한 모순이 없고 또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해석의 원칙 (23c)와 인식의 원칙 (21d)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23c)가 우선권을 지닌다.

2.2.2 당나귀 문장의 대명사 의미해석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의 의미를 앞에서 예시한 인지문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장 (3)은 앞에서의 논의과정에서 그 의미가 밝혀졌듯이 대명사가 (2d) 유형의 강한 의미해석을 갖는 (10)에서 표시한 의미를 지닐 때 토박이의 언어직관에 일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2a) 유형의 (8)의 의미 또는 (2c) 유형의 (9)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상황은 다음 (24)이면 충분하다.

(24)



위 (24)의 상황 모형에서 d'는 d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다음 (25)와 같이 농부가 들고 당나귀는 셋일 경우에는 beat의 의미를 (26)에서 열거한 f와 d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 중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 (25) farmer = {f<sub>1</sub>, f<sub>2</sub>}
- donkey = {d<sub>1</sub>, d<sub>2</sub>, d<sub>3</sub>}
- own = {<f<sub>1</sub>, d<sub>1</sub>>, <f<sub>1</sub>, d<sub>2</sub>>, <f<sub>2</sub>, d<sub>3</sub>>}

---

보는 경우이다.

- (26)  $beat_1 = \{ \langle f_1, d_1 \rangle, \langle f_1, d_2 \rangle, \langle f_2, d_3 \rangle \}$   
 $beat_2 = \{ \langle f_1, d_1 \rangle, \langle f_2, d_3 \rangle \}$   
 $beat_3 = \{ \langle f_1, d_2 \rangle, \langle f_2, d_3 \rangle \}$   
 $beat_4 = \{ \langle f_1, d_1 \rangle, \langle f_1, d_2 \rangle \}$   
 $beat_5 = \{ \langle f_1, d_1 \rangle \}$   
 $beat_6 = \{ \langle f_1, d_2 \rangle \}$   
 $beat_7 = \{ \langle f_2, d_3 \rangle \}$   
 $beat_8 = \{ \}$

위 (26)에서  $\langle f_1, d_3 \rangle$ 와 같은 경우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실세계에서 그 누구라도 당나귀를 때리게될 때 자기의 당나귀를 때리지 남의 당나귀는 때릴 수 없다는 (21b)에 입각한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beat_8$ 은 그 누구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를 때리지 않은 경우의 의미이다.

먼저 문장 (3)은 (8), (9) 그리고 (10)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했는데 (24)의 상황모형에 의하면 이를 모두 설명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8)의 의미는 (26)의  $beat_2$ 나  $beat_3$ 의 경우를 말하는데  $f_2$ 의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f_1$ 의 경우에는 두 마리의 당나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d_1$ 을 마음에 두었다면  $beat_2$ 가 (8)의 의미가 되고  $d_2$ 를 마음에 두었다면  $beat_3$ 가 (8)의 된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8)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한편 (9)의 의미는 (8)과 큰 차이가 없다. (26)에 표시된  $beat$ 의 의미에 의하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차이를 지적한다면 그 차이란 (8)의 의미는 화자가 문장 (3)을 발화할 때 화자가 특정한 당나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9)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화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beat_2$ 나  $beat_3$  중 하나이면 그 어떤 것도 (9)의 의미해석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리고 (10)의 의미는  $beat_1$ 의 의미해석을 뜻한다.

아직도 문장 (3)의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다. 토박이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3)의 의미로 방금 해석해낸 의미 중 왜  $beat_1$ 의 의미를 꼽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이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문장 (3)에서 farmer 앞에 사용된 양화사가 전칭 양화사인 every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24)의 상황 모형에서는

farmer를 상징하는 f가 own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도달한 beat의 보조세계에서도 own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f로 표시됐다. donkey의 경우에는 own의 세계에서 d로 표시하고 beat의 세계에서는 d'으로 표시함으로써 own의 세계에서 donkey와 beat의 세계에서의 donkey의 지시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상황 모형 (24)에서는 d'가 d의 부분집합이다. 그래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f 즉 농부 둘 다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beat<sub>1</sub> 뿐만 아니라 beat<sub>2</sub>나 beat<sub>3</sub>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d'는 d의 부분집합을 가리키고 있기에 상황 모형 (24)에 의하면 beat<sub>1</sub>보다는 beat<sub>2</sub>나 beat<sub>3</sub>가 문장 (3)의 의미로는 더 적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토박이들은 beat<sub>1</sub>의 의미를 문장 (3)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 (27)의 예문을 보자.

(27) Every man loves a woman.

위 문장 (27)의 경우 모든 남자들이 특정한 한 여인 예를 들면 Madonna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남성들이 각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뜻을 지닌다.<sup>11)</sup>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둘 아니면 셋이어도 괜찮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man 앞의 every란 전칭양화사가 지닌 의미가 woman 앞의 a가 지닌 존재양화사의 의미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7)의 문장의 경우 결코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이는 (27)의 문장이 본래부터 그러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세계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문장 (27)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언급인데 이를 해석하고자 할 때 그 해석의 모델이 되는 그 어떤 상황도 모든 남자에 의한 모든 여성에 대한 사랑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장 (27)은 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11. 물론 합성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모형의미론자들에 의하면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의미해석이 가능한 것은 전칭양화사와 존재양화사 사이에서 일게되는 지배영역의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Fauconnier의 두뇌공간 이론은 담화표지 이론이나 역동적 연속이론과 마찬가지로 합성성의 원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의미는 상황에 근거한 인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합성성의 원칙에 의한 설명은 약점을 지닌다. 남자들이 사랑하고 있는 여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인식에 기초하여 의미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장 (3)의 경우는 다르다. 당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가 자기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당나귀를 때릴 수 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화풀이로써 때리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비정상적인 성격이어서 그러한 짓을 한다면 오히려 특정한 당나귀나 일부의 당나귀만 때리는 것보다는 모든 당나귀를 닥치는 대로 때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문장 (3)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앞에서 논의한대로  $beat_1$  즉 (10)의 강한 의미 해석을 지니는 경우가 된다.

또 상황 모형 (24)는 문장 (11a)의 의미도 쉽게 해석해낼 수 있다. (26)의  $beat_2$ 가 (11a)의 의미해석을 해낼 수 있는 의미이다. 우리가 전칭 양화사를 포함한 명제를 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을 상정하지 않고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임의의 어떤 대상을 택하여 이를 부정함으로써 전체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1a)는 (2a)와 같은 유형이 아니라 (2c)와 같은 유형에 근거하여 약한 의미해석에 따른 임의의 한 대상을 상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beat_3$ 이다. 이는 토박이들의 언어지관에 일치하는 의미해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11b)의 의미나 (11c)의 의미도 (24)의 상황 모형을 토대로 쉽게 해석해낼 수 있다. (11b)의 경우에는 (24)의 상황 모형을 이용하되 농부의 숫자가 좀 많은 경우를 가정하면 충분하다. 농부의 숫자가 많으니까 농부들이 소유하는 당나귀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농부와 당나귀를 첫째 항과 둘째 항으로 하는 순서쌍의 집합(set of ordered pair)을 원소로 지닌 집합 즉  $beat$ 의 의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어떤 집합-즉  $beat$ 의 의미-의 원소인 순서쌍을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의 항 즉  $f$ 가 전체  $f$ 의 절반을 넘어선 경우가 존재하면 바로 그 집합이 문장 (11b)의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농부가 셋일 경우 다음 (28)에서  $a$ 는 (11b)의 의미를 설명하는  $beat$ 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b$ 는 그렇지 않다.  $b$ 는 (11b)의 의미를 반영하는  $beat$ 의 의미가 될 수 없다.

- (28) a.  $beat_{11} = \{ \langle f_1, d_1 \rangle, \langle f_1, d_3 \rangle, \langle f_3, d_5 \rangle \}$   
 b.  $beat_{21} = \{ \langle f_1, d_1 \rangle, \langle f_1, d_2 \rangle, \langle f_1, d_3 \rang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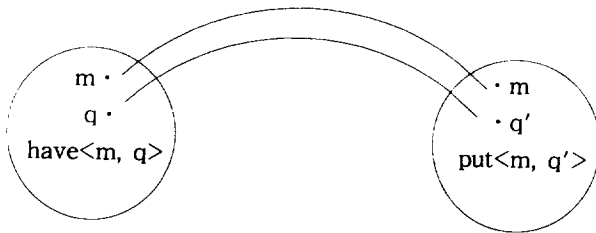
물론 farmer 앞의 양화사가 most이니까 첫 번째 항인  $f$ 가  $f_1, f_2, f_3$  모두를 포함하면 안 된다. 한편  $f$ 의 첫째 항과  $d$ 의 둘째 항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응관계가 성립하면 (2b) 유형이 표시하고 있는 의미가 된다. 또 과반수 이상의 농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 모두를 때리게되면 이는 (2d)의 유형이 지닌 의미를 지니게되고 일부만을 때리게되면 (2c) 유형의 의미 곧 약한 의미해석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각기 다른 의미는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24)의 상황 모형을 토대로 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11c)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용한 (24)의 상황 모형을 토대로 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다. farmer의 숫자가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이면 충분하다. 농부의 숫자가 셋이든 넷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되든 상관없이 beat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순서쌍의 원소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의 항에 속하는  $f$ 가 둘 이상이면 충분하다. (11b)의 경우에는  $f$ 가 전체가 아니면서 동시에 절반 이상을 지나야 했지만 (11c)에서는 둘 이상이면 충분하다. 전부이어도 괜찮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해석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d) 유형이 보여주고 있는 강한 의미해석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at least two라는 양화사도 every와 같은 성질을 지닌 양화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24)의 상황 모형을 토대로 하여 (21)의 인식의 원칙과 (23)의 해석의 원칙을 이용한 인지론적 문법의 틀이 (3)의 문장을 중심으로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닌 의미의 특질을 밝히고 그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이론적인 틀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논의 과정에 나타난 문장 (16)도 상황 모형 (24)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다음 (28)을 이용하면 쉽게 설명해낼 수 있다.

(2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Fauconnier(1985, 1994, 1997)의 두뇌공간 개념을 토대로 상황을 (20)에서처럼 가정하고 우리의 인식작용을 반영한 인식의 원칙과 그에 근거한 해석의 원칙을 도입한 인지론적 문법의 틀이 예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문장 (3)과 같은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의 의미를 토박이들의 언어직관이 이해하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상황, 인식의 원칙, 그리고 해석의 원칙 등을 토대로 한 인지론적 문법의 틀이 예전의 이론들이 지닌 약점들을 보완한 좀 더 타당한 이론적인 틀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3. 결론

Geach(1962)와 Evans(1980)에 의하여 당나귀 문장과 거기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type의 분석, 담화 표지이론 그리고 역동적 결속이론의 설명이 주된 연구들이었는데 이들에 의하여 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그 설명도 한층 발전되었다.

언어의 기능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미를 토대로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덧붙쳐 나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문장과 문장들이 상호간에 밀접한 의미를 형성하며 이루어나간다. 이 때 대명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대명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 처음에는 명사구를 이용하고 다시 이를 지칭할 필요가 있으면 대명사를 사용하기에 얼핏보면 동일지시론자들의 주장이 전부인 듯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E-type의 분석도 상황의 개념을 도입한 담화표지 이론이나 역동적 결속이론도 언어가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는 E-type의 분석이나 담화표지 이론 그리고 역동적 결속이론이 지닌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인식의 속성을 고려한 상황의 모형과 해석의 원칙을 도입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인식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밝힘으로써 당나귀 문장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닌 의미현상들을 토박이들의 직관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E-type의 분석

이나 담화표지 이론 또는 역동적 결속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언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언어란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점보다 중시하고 우리가 지닌 인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접근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이기동.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정미애. 1997. *영어 조용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최중열. 1998. "대명사의 의미해석" *담화와 인지* 5-2. pp. 207-224.
- Asher, N. 1987. "A Typology of Attitude Verbs and Their Anaphoric Properti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 pp. 125-198.
- Chierchia, G. 1992. "Anaphora and Dynamic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5. pp. 111-183.
- \_\_\_\_\_. 1995. *Dynamics and Mean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sholm, R. M. 1979. "Identity through Possible Worlds: Some Questions" *The Possible and the Actual*. pp.80-87.
- Cooper, R. 1979. "The Interpretation of Pronouns" *Syntax and Semantics* 10. pp. 61-92.
- Evans, G. 1980. "Pronouns" *LI* 11. pp. 337-362.
- Fauconnier, G. 1986. "Roles and Connecting Paths" *Meaning and Interpretation*. pp. 19-34.
- \_\_\_\_\_. 1994(=1985). *Mental Spa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ach, P. 1962. *Reference and Generality*.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Groenendijk, J. and M. Stokhof. 1991. "Dynamic Predicate Logic"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 pp. 39-100.
- Heim, I. 1983. "File change semantics and the familiarity theory of definitenes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pp. 164-189.
- \_\_\_\_\_. 1990. "E-type Pronouns and Donkey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pp. 129-170.
- Higginbotham, J. 1980. "Pronouns and Bound Variables" *LI* 11. pp. 679-708.
- Kadmon, N. 1990. "Uniquenes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pp. 257-308.
- Kamp, H. 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Formal Methods*

- in the Study of Language*. pp. 177-362.
- Langacker, R. 1966.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Modern Studies in English* pp. 160-186.
- Lappin, S. 1989. "Donkey Pronouns Unbound" *Theoretical Linguistics* 15. pp. 263-286.
- Reinhart, T. 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Rooth, M. 1987. "Noun Phrase Interpretation in Montague Grammar, File Change Semantics, and Situation Semantics" *Generalized Quantifiers*. pp. 237-268.
- Sells, P. 1986. "Coreference and Bound Anaphora: A Restatement of the Facts" *Proceedings of the Sixteenth Annual Meeting, NEL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Sweeter, E. and G. Fauconnier. 1996. "Cognitive Links and Domains: Basic Aspects of Mental Space Theory" *Spaces, Worlds and Grammar*. pp. 1-28.

560-75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번지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영어영문학과  
E-mail: choicl@jeonju.ac.kr